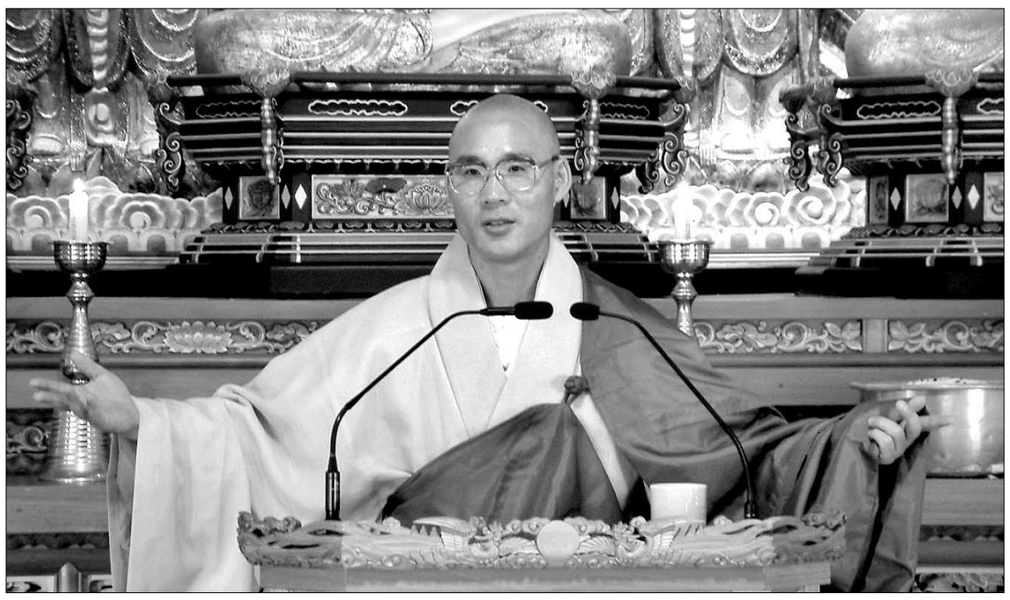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와이 무량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3)

주제:간화선의 기초수행-좌선법

법주:영진 스님(전국선원대표자회의 의장)



영진 스님은 내가 본래 깨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화두의 시작이며 간화선의 생명은 크게 의심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와이 무량사 신도들은 매주 일요일을 기다린다. 하와이 무량사 창건 30주년과 문화원 준공기념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해외에서 선원장 스님들을 만나뵐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일요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무량사를 찾는다.

하와이 현지 시각으로 10월 9일은 세 번째 간화선 법회가 열린 날. 오전 10시에 법회가 시작되지만 한시간 전부터 무량사 설법전에는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법주는 조계종 전국선원대표자회의 의장 영진 스님. 주제는 '간화선의 기초수행-좌선법'이다.

청법가에 이어 법좌에 오른 영진 스님은 잠시 신도들을 둘러보았다. 법회에 동참한 신도들은 영진 스님과 눈을 맞추며 깨달음의 갈망을 드러낸다. 영진 스님은 동참 대중의 근기를 파악이라도 하듯 웃음을 지으며 법문을 시작했다.

'내가 본래 깨친 존재'라는 믿음에서 출발

"오늘 이 법회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앉아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행법-기도, 염불, 만행 등에서도 으뜸인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법당을 울리자 신도들은 더욱 진지해졌다. 간화선이라는 수행법이 생소해서일까? 신도들의 눈동자에는 온통 영진 스님의 모습이 영롱하게 반추되고 있었다.

"내가 본래 깨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화두의 시작입니다. 또한 부처님과 스승님에 대한 믿음도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 부처님과 스승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심을 하고 화두를 통해 의정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크게 의심을 내면 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분심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분심은 용맹정진하는 분발심입니다."

영진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는 내내 신도들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영진 스님은 또 깨달으면 어떤 경계가 와도 끄달리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으며 고통이 와도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죽음이 와도 생사 문제를 초월할 수 있으니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저녁에 잘 때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피곤한 몸을 누이면 내일이 온다는 확신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하지만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지만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말고 열심히 수행정진하세요."

평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신도들은 죽음만큼 중요한 것이 깨달음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아는 듯 했다. 법문이 진행될수록 신도들의 허리는 더욱더 펴지고 있었다.

스님의 열기가 설법전에 가득했다.

물 흐르듯 법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진 스님은 만공 스님의 일화를 소개했다.

"만공 스님이 결제 법문을 하려는데 어떤 꼬마가 불쑥 법좌 앞으로 뛰어 나왔습니다. 만공 스님은 꼬마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5살이라고 하자 만공 스님은 5살 이전에는 몇 살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4살 이전, 3살 이전을 물은 스님은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법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하며 법좌를 내려왔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큰스님의 일화지만 신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내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들어있다. 영진 스님은 만공 스님의 일화를 통해 하나의 화두를 청중들에게 넌지시 던진 셈이다.

의심 나면 용맹정진의 분심 절로 일어

"화두 수행을 하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화두를 들다보면 망상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때 망상을 버릴려고 하면 더 큰 망상이 일어나죠. 번뇌망상이 생길수록 화두를 더 굳건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내십시오. 내가 부처인 것을 믿고 화두를 들다보면 망상이 사라지고 깨달음의 길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화두참선을 할때 다가오는 장애에 대해서도 영진 스님은 자세히 설명했다.

"화두를 들다보면 두가지 장애가 옵니다. 하나는 번뇌 망상이고 또 하나는 혼침입니다. 혼침은 쉽게 졸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번뇌 망상은 화두를 더 간절히 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지만 잠이 그렇지 않습니다. 잠이 올 때는 다리를 살짝 들어 자세를 교정하든지 아니면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와서 다시 자리에 앉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부처' 믿고 화두 들면 깨달음 눈앞에

영진 스님은 육조혜능 스님과 남악회양 스님의 선문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의미, 일본 선사와 사무라이와의 극락과 지옥 이야기, 덕신 스님과 소동파 이야기 등 선(禪) 일화들을 소개하며 간화선의 핵심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법문 내내 신도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진지함이 교차됐다.

영진 스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의심을 크게 내어 화두 수행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에 도달합니다. 언제까지 내일로 미룰겁니까? 미루다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 일대사 생사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글 · 사진/하와이=김두식 기자

■ **영진 스님은** 1972년 김제 금산사에서 현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 용봉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출가이후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백담사 무금선원, 은해사 기기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에만 몰두해오고 있다. 99년부터 3년간 조계종 기초선원장 겸 동화사 금당선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전국 선원대표자회의 의장을 맡고있다.

영진 스님이 말하는 좌선법

양 무릎과 머리 삼각형 만들고 모든 인연 놓아버려야

두시간여의 법문이 끝난후 영진 스님은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직접 가부좌 트는 법, 수인 등의 방법을 설명했다.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수행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라고,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 등 어떤 자세에서든지 할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좌선입니다. 간화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앉아야 합니다. 결가부좌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우니 반가부좌를 권합니다."

영진 스님은 오른발을 엉덩이 밑으로 하고 왼발은 들어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며 반가부좌를 직접 시연했다. 또 허리는 굳게 펴며 어깨의 힘을 빼고 눈은 콧잔등을 향하고, 혀는 입천정에 살짝 붙이라고 부연했다. 전체적으로는 무릎에게 머리까지 삼각형을 이루게 하되 무게 중심을 아래로 두라고 자세한 지도를 했다. 스님의 시연을 보며 신도들은 저마다 자세를 바로잡으며 바르게 앉는 법을 익혔다.

스님은 또 앉아 있을때의 주의사항도 빼 놓지 않고 자세

좌선법을 시연하며 영진 스님이 일일이 신도들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주고 있다.

하게 알려 주었다.

"앉아 있을때 모든 인연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야 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나와 괴로워하는 나를 분별하면 안됩니다. 더불어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틈이 없게 해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나 고요할 때도 항상 틈이 없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음식에 관해서도 주의할 점이 이어졌다. 탁한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식곤증이 오며, 너무 적게 먹으면 힘이 없어 허리가 굽어지기에 음식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좌선법 설명을 마친 영진 스님은 동참 대중들과 함께 실참 시간을 가졌다. 영진 스님은 실참 시간 내내 신도들의 잘못된 자세를 일일이 고정해 주었다.

법회에 참석한 구진성 법사는 "영진 스님이 좌선법을 직접 시연하며 자상하게 가르쳐 주어 좋았다"며 특히 "실참하는 도중에 스님이 직접 자세를 교정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깨달음(도통)과 불치병 · 난치병 · 각종암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참선공지도자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 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 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무량한 功德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 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 체험, 빙의 · 해리 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 천도비법등 신비법 전수.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자비의 손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善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 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現 참선공 협회장

전수반 안내
금요반 · 토요반
16:00~21:00까지(12회 과정)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자비손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 · 해리 치유법
칠차원 생명법
전생 치유법
내생 치유법

◆ 교육후 神임상최면사 자격증 · 神치유명상사 자격증 · 참선공 자격증 발급.
◆ 지도자 과정 전수후 사회활동 하실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卍신선암 神치유명상센터 神임상최면협회

● 전화 : 02)383-1319/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